

2022년 02월 13일

#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목상기도 하겠습니다.

### ◎ 목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3편 5~6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540(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요한일서 4장 13~21절(신약p.392)

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 ◎ 말씀선포 /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히브리서 11장 1~2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분명 사람은 누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육적인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영적 실재를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본문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1. 성령 하나님을 주십니다.

-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본문 13~15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는 성도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험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고, 연약한 자를 가까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했거나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도 이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순종하는 삶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한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인 고찬익 장로의 일화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사기꾼이며 술꾼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 시도를 하는 등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동교회의 게일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사기꾼이자 술꾼으로 살았던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녀로 불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직접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평소에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십니다. 13절에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셨다.” 의 원문은 “데도켄” 으로 “디도미” 의 완료시제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고 할 때 “거한다.” 는 헬라어 “메노멘” 으로 “메노” 의 현재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심은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러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연약하여 매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로인하여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 좌절도 하고 실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매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2. 담대함을 주십니다.

- 본문 16~1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고 했습니다. 영적 확신은 구체적 체험으로 더욱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 주시기 위해 영적 체험들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담대함이라는 변화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고 했는데, 여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를 원문으로 보면, “헤 텔레이아 아가페 엑소 발레이 톤 ㅎ포본” 입니다. 여기 동사 “발레이” 는 “강제로 추방하다.” , “내버리다.” 라는 뜻인데, “밖으로” 라는 뜻의 부사 “엑소” 와 더불어 나오면 강조의 표현으로 “단호하게 축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두려움을 완전히 내몰아 버리는 은혜요 믿음의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살피시고 벌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었기에,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회피하며 살았습니다. 그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신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담대함으로 우리가 당신의 자녀임을 확신케 하십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깊은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이들은 관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기보다 관계 맺기를 두려워하고 긴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모두 두려움을 물리치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545(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 ◎ 폐 회 / 주기도문